

인 사 말

불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국민의 행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끊임 없이 발원하고 정진하여 왔습니다.

궁극적으로 불교계가 추구하는 것이 현 정부가 원하는 국민행복과 다르지 않기에, 불교계는 현 정부의 국민중심적인 비전을 적극 지지하고 부응할 것입니다.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키우는 것이 곧 지혜를 이루는 것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고, 같은 의미로써 하화중생을 통해서 상구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원으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.

상식과 이성 그리고 합리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현 정부의 진정성과 일관된 정책은 점차 국민에게 믿음과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. 나아가 DMZ평화공원 제안으로 세계속에 신뢰와 평화의 공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,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상과 역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. 이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고 국민에게 세심하게 다가가려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

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불교는 국민과 정부와 함께 할 것이며,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. 현 정부의 건승으로 인해 경제부흥과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모두의 정성으로 기원합니다.

다시한번 오늘 초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